



[메타버스 올라탄 금융권] 메타버스 점포서 대출상담·적금 만드니 MZ세대 '노크' 03



Economy

코스피	2997.33 (-15.92)	코스닥	1013.72 (-18.59)
금리 (20년 국채)	2.031 (+0.013)	환율 (원/달러)	1189.70 (+4.60) (13일)

이재용 “가보지 않은 미래 개척” 초격차 뛰어넘는 ‘뉴 삼성’ 으로

美 테일러시에 파운드리공장 확정

삼성, 2030 반도체시장 1위 목표 타이완 TSMC 추격 본격화 방침 신규일자리 1800여개 창출 예고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손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서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글로벌 광폭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이번 미국 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뉴 삼성’과 ‘미래’였다. 그는 미 현지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하자”며 ‘뉴삼성’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연구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 세상과 산업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면서 우리의 생존 환경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한 뒤 혁신 노력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히 “추격이나 뒤따라오는 기업과 격차 벌리기만으로는 거대한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

래를 개척해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이번 미국 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뉴 삼성’과 ‘미래’였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길에 애플과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 TSMC간의 밀월(비견되는, 구글 등 반(反) 애플 연합)과 만나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오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미국 신규 파운드리 투자도 최종 마무리 지으며 미국 동서부를 횡단하는 숨 가쁜 출장 일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에 건설하

는 제2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확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 절대 강자인 타이완 TSMC 추격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0조1994억원) 규모의 제2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와 관련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오는 23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오늘 제6회 뉴테크놀로지 포럼 현실 넘어 ‘메타버스·AI’ 속으로

게임·금융업체 등에 메타버스 확산 현대원·박상용 교수 등 발표 진행



이경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올해 IT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메타버스였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초반 닷컴에 대한 열풍과 비교될 정도로 뜨겁고, 오늘날의 인터넷의 역할처럼 미래에는 메타버스 없이는 생활하기가 크게 불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L8면>

메타버스 서비스는 미국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와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가 대표적이지만, 최근 게임업체는 물론 통신사, 가전업체, 금융업체까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난 5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또 최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선정했는데 메타버스를 하나의 육성 과제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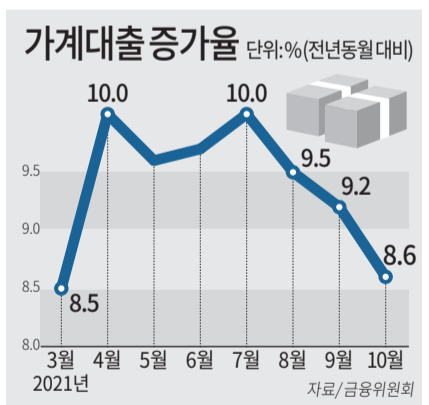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갖춘 가

상인간 기술과도 결합하는 추세다. AI 아이돌이 속속 데뷔하고 있고, AI 유튜브, AI 모델, AI 인플루언서 등이 등장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결국 메타버스와 AI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는 24일(수)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제6회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 기조연설은 미래창조과학부 규제심사위원장, 디지털 콘텐츠 산업 포럼 의장, 한국 VR산업협회 회장,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등을 거쳐 서강대학교에서 미디어융합연구소장을 지난 바 있는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인 현대원교수가 맡는다. /채윤정 기자 echo@

대출 문 다시 여는 은행... 막차 수요 몰리나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적 관리에 하나·농협, 주택담보 대출 재개 내년 DSR 강화에 대출증가 우려



은행들이 대출문을 다시 열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을 중단한 이후 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연말 막차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모든 신용대출상품과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재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 구입자금 대출은 내달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재개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전세대출과 집단지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상품을 제외하면 가계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던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출판매를 당초 계획했던 연말보다 앞당겨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0월

말 5.2%에서 지난 17일 5.18%로 0.02%포인트(p)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6%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4분기 전세대출 취급액을 빼면 약 한달간의 대출여력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협은행도 내달부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11월 말쯤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의 양도절차가 완료되면, 대출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중은행들은 적격대출, 보증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모기지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뒤 3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판매대금을 받는다. 정책모기지대출 금액이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가면, 약 3000억원 이상의 대출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115@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향년 90세

서울 자택서 부인 이순자씨가 발견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묻힐 수 없어”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8일 만이다. <관련기사 L4면>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고령의 나이였던 그는 올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부인인 이순자 씨가 쓰러진 전 전 대통령을 발견하고 그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연희동 자택에서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회고록에 쓴 유언을 읽어 내려갔다.

전 전 대통령은 미리 회고록에서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복讎 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민 전 비서관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은 없었냐는 질문에 “애 통하겠으나, 광주에서 일이 있고 대통령이 된 후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했기에 그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에게 발표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은 끝내 부인했다.

장례는 미국에 체류 중인 3남 전재환 씨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뒤 치를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3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文, BTS AMA 대상에 “이제 자부심 가질 만하지 않나”
- ▲ 이재명, 군 지뢰 폭발사고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 ▲ 전두환 측 “5·18 막연히 사죄하란 질문 잘못... 책임 없어”
- ▲ 윤호중 “특검 제대로 하려면 현행법 따라 추천위 구성해야”



- ▲ 박지원, 요소수 사태에 사과... “중헌지 보고 단순첩보로 간과”
- ▲ 인사처 “내년 국가직 9급 면접시험, 6월18일에 실시”